

인간의 사고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파헤친 책들

구텐베르크 인쇄술 다룬 책들



‘구텐베르크’의 이름을 단 책들이 있다. 이 책들은 주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함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에 따른 사고의 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구텐베르크로 대변되는 독서문화 시대의 종말이 다가왔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인쇄술 발명과 선형적 세계의 구축

마살 맥루한의 《구텐베르크 은하계》(임상원,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인쇄술의 발명이 서구문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특히 알파벳과 인쇄술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다가오는’ 전자시대의 미래를 그려 보이고 있다. 맥루한은 알파벳과 인쇄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단순히 기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을 재형성시키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구문명의 본질인 개인주의, 표준화, 획일화, 계량화, 과학주의가 구텐베르크 이후 활자와 인쇄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선형적 사고구조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래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모두 사용해 세상을 통감각적으로 인식했지만, 알파벳의 발명과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출현으로 모든 것이 시각으로 환원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파편적·선형적·획일적 세계(구텐베르크 은하계) 속에 살게 됐지만 TV를 비롯한 전기 매체의 등장으로 다시 통감각적 세계관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맥루한은 말한다.

이 책은 원래 1962년에 출간됐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1992년이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맥루한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맥루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열게 된 것은 맥루한이 이 책에서 예언한 그대로다. 그가 스스로 ‘모자이크식 글쓰기’라고 일컬었던 병렬적 글쓰기는 인터넷의 하이퍼텍스트 개념과 일치하며, 저자가 곧 독자인 ‘중세적 글쓰기’는 인터넷 글쓰기로 부활했다.

마살 맥루한이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면, 노르베르트 볼츠는 비교적 최근 상황(1995년)에서 미래를 예견한다. 《구텐베르크—은하계의 끝에서》(윤종석, 문학과지성사)라는 제목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황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제 컴퓨터와 전자 미디어로 인

해 ‘구텐베르크 은하계’로 상징되는 도서문화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예견한다. 볼츠는 이렇듯 커뮤니케이션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변화를 가능케 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철학적·미학적으로 분석해낸다.

그는 우선 뉴미디어의 복잡한 철학적 계보를 되짚어보는데, 오늘날의 멀티미디어에는 라이프니츠로부터 키에르케고르, 니체에 이르는 철학의 흐름이 담겨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낭만주의 문학이론에서 사이버스페이스 미디어이론의 단초를 발견해내기도 하고 《걸리버 여행기》에서 ‘문장을 만드는 기계’와 같은 뉴미디어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분석으로 근대의 종말 예고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단순히 책을 대량 보급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쇄술은 ‘기독교’ ‘민족국가’ ‘자본주의’라는 근대를 지배한 세가지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는 《굿바이 구텐베르크》(중앙일보새천년)에서, “그러므로 ‘책’이라는 미디어와의 단절은 ‘근대’의 퇴장이며 근대의 근본 개념인 ‘이성’의 쇠퇴”라고 말한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대표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황들을 분석해간다. 이들 새로운 미디어는 시간적·공간적 거리의 단축은 물론, 있는 현실을 조작·구성할 뿐 아니라, 없는 현실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냄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김교수의 생각은 낙관적이다. 특히 가상공간은 상상과 자유, 추상과 기억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인간 확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앞의 책들과는 달리, 《구텐베르크의 가면》(필리프 반덴베르크, 최상안, 한길사)은 구텐베르크를 소재로 한 가상 역사소설이다. 서구에서는 최초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본 성서를 찍어냈다는 역사적 사실에, 실은 교활한 구텐베르크가 스승이었던 거울 세공사 멜처의 기술을 훔친 것이라는 작가적 상상력이 결합돼 소설이 끌어나간다. 소설에서 멜처가 발명한 인쇄술은 10만장의 면죄부를 파는 데 이용된다. 인쇄술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그려진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함께 현실감 있는 중세도시의 묘사가 책 읽는 맛을 더한다. —김장근기자